

<자료문의> 미래교육연구본부 디지털교육지원센터

김택형 부연구위원 ☎ 043-530-9474

대학 통폐합, 무엇을 바꾸었나?

: 대학 경쟁력은 개선, 구조조정 효과는 제한적

- 통폐합은 대학 수 줄이기 외에 무엇을 남겼나?
- 데이터가 말하는 통폐합: 경쟁력은 '지속 상승', 몸집 줄이기는 '잠시뿐'
- 입학경쟁률·외국인 유학생 수는 계속 늘고, 급감했던 교원·학과 수는 다시 증가

-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9월 22일(화)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대학 통폐합, 무엇을 바꾸었나: 대학 경쟁력은 개선, 구조조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주제로 2026년 「KEDI Brief」 제18호를 발표하였다. 본 브리프는 2025년에 수행된 기본연구과제 「대학 통폐합 과정 쟁점 분석」(연구책임자: 임종헌)의 연구 결과 중 '데이터로 본 통폐합 대학의 성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 사회가 본격적인 '통폐합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노무현 정부(15건), 이명박 정부(9건) 시기에 활발했던 대학 통폐합은 소강기를 거쳐 최근 글로벌대학30,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와 함께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통폐합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었으며, 그 효과가 언제·얼마나·어떤 대학에서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6년까지 공공데이터에서 확인되는 대학 통폐합 총 37건(75개 대학) 중 분석 가능한 27건을 대상으로 통폐합 전후 대학의 변화를 실증 분석하였다. 통폐합은 캠퍼스 유지 여부에 따라 '일원화 통폐합'(17건, 사립대학 중심)과 '이원화 통폐합'(10건, 국공립·비수도권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 * 고등교육통계(KEDI) 및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고, 대학별 통폐합 시점의 차이를 고려하여 단절적 시계열 분석(ITS)과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해 통폐합 직후의 '수준 변화'와 이후 '추세 변화'를 구분하여 분석함.
- 분석 결과, 대학 통폐합은 대학 경쟁력, 규모, 구조조정 측면에서 서로 다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 경쟁력) 통폐합은 대내외적으로 학생을 유입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입학경쟁률은 통폐합 직후 유의하게 상승(+1.66)하였고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며, 신입생 충원율도 소폭 개선(2.51%p)되었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통폐합 직후 약 99명 증가하고 이후에도 매년 약 35명씩 증가하여, 국내 입학자원뿐 아니라 해외 학생 유치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 규모) 입학정원과 재학생 수는 통폐합 직후 급감하였다. 통폐합 직후 입학정원은 약 457명, 재학생 수는 약 827명, 휴학생 수는 약 869명 감소하였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규모를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통폐합 정책의 목표와 일치하며, 통폐합 이후에도 입학 정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규모 축소 효과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조조정) '단기 감축, 장기 재팽창'의 양상이 나타났다. 통합 직후 비전임교원 수는 약 130명, 학과 수는 약 11개 감소하여 유사·중복 학과의 정비 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통폐합 이후 비전임교원 수(연 +20.8명), 직원 수(연 +5.5명), 학과 수(연 +0.7개)는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전임교원 수는 통폐합과 무관하게 전후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이는 통폐합의 인적 구조조정 효과가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재학생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의 전임교원 증가와 학과 수 증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 및 전공 영역 다변화 등 교육여건 개선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 (효과의 이질성) 통폐합의 효과는 지역·설립유형·통폐합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은 비수도권 대학보다 통폐합 이후 입학경쟁률이 추가로 상승하였으나, 재학생과 학과 수 감소폭은 줄어들었다. 국공립대학은 사립대학보다 정원·재학생 감소폭이 작았고 학과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일원화 통폐합에서는 경쟁률 상승과 규모 감축 효과가 뚜렷했던 반면, 이원화 통폐합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표 3〉 대학 통폐합이 대학 경쟁력, 인적 규모,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ITS 분석 결과)

영역		변수명	통폐합 이전 기울기(β_1)	통폐합 시점 수준 변화(β_2)	통폐합 후 기울기변화(β_3)	통폐합 이후 추세(Δ)
경쟁력		입학경쟁률(비)	0.02	1.66*** ▲	0.11** ▲	0.13*** ▲
		신입생 충원율(%p)	-0.395** ▽	2.51*** ▲	0.499*** ▲	0.104
		외국인 유학생 수	15.18*** ▲	99.45*** ▲	19.86*** ▲	35.04*** ▲
인적 규모		입학정원	-19.92*** ▽	-456.69*** ▽	3.09	-16.83*** ▽
		재학생 수	-5.75	-826.93*** ▽	27.98	22.23
구조조정	인적 운용	전임교원 수	5.14*** ▲	7.49	-1.62	3.52*** ▲
		비전임교원 수	15.7*** ▲	-129.71*** ▽	20.80*** ▲	36.5*** ▲
		직원 수	6.58*** ▲	-15.48	5.45*** ▲	12.02*** ▲
		학과당 교원 수	0.49	-7.69** ▽	0.17	0.65* ▲
	조직 운용	학과 수	0.00	-10.50*** ▽	0.68* ▲	0.68** ▲

주: *** p<.001, ** p<.01, * p<.05. ▲는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숫자임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숫자임을 의미함.

출처: 임종현 외(2025). 〈표 VI-15〉, 〈표 VI-16〉, 〈표 VI-18〉, 〈표 VI-19〉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향후 통폐합 정책이 대학 수 감축 자체보다 통폐합 이후의 내실 있는 운영과 특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를 위해 적정 정원 산정, 중복 학과 정비, 재정·자산 통합, 학교법인 및 거버넌스 재편 등 실질적인 구조개선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 캠퍼스가 유지되는 이원화 통폐합은 규모 감축뿐 아니라 중복 학과 조정, 캠퍼스별 기능 특성화, 교육과정 공동 운영, 행정조직 통합 등을 통해 각 캠퍼스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브리프는 대학 통폐합 지원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고등교육 정책 설계에도 정교한 실증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위 내용은 [별첨] 「KEDI Brief」 제18호에 보다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KEDI Brief」 제18호는 「대학 통폐합 과정 쟁점 분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전문은 한국교육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